인권정보자료실
Me.b.3

분류기호: Me
주제어: 동성애자

홍석천씨 커밍아웃 관련자료

(2000년9월26일-2000년11월)

1. 홍석천씨 인터뷰 모음

1) 하루하루가 투쟁이다 - 한겨레 21 (00/09/26, 327호)
2)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하루소식(00/09/29, 1705호)

2. 홍석천씨 관련기사 모음

3. 인권, 사회 단체의 공식입장과 성명서

1) '홍석천씨 컴밍아웃'에 관한 동인련의 공식입장
2) 연예인 홍석천씨를 둘러싼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동인련외 5개 단체(00/09/28)
3) 성명서 - 홍석천씨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00/09/29, 보도자료)
4) 홍석천씨 컴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인권하루소식 (00/09/29, 1705호)
5) 홍석천 국감거부 사건 경위와 공식입장 - 동인련, 홍커지모(00/11/10)

4. 인권하루소식에 실린 홍석천씨 관련기사와 논평

5. 자료집 - Comingout 2000

한겨레21

제목: 하루하루가 투쟁이다-홍석천씨 인터뷰

[사람과 사회] 2000년09월26일 제327호
[사람과사회] "하루하루가 투쟁이다"

홍석천씨 인터뷰

참 대책없는 사람 같았다. 아웃팅을 당하고도 여전한 그의 솔직함에 가끔씩 움찔할 지경이었다. 어쩌자고 묻는 대로 대답해 그렇게 낭패를 보고도 여전히 묻는 대로 답하는지. 조금 영악해질 만도 하건만 그는 숨기는 걸 몰랐다. '솔직함' 은 그의 체질인 듯했다.

-기사가 나간 뒤 생활은.

=(깊은 숨을 들이 마신 뒤) 하루하루가 투쟁이다. 나와의 투쟁이고, 모든 것과의 투쟁이다. 투사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덧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

-동성애자라고 인정한 이유는.

=나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단지 그것뿐이고 또 그게 전부다. 애기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걸 나도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또 누군가 "남들 다 안 하는데 왜 굳이 나서느냐?" 고 물으면 반박할 말도 많지 않다. 이게 난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말밖에 더 없다.

그가 커밍아웃한 이유는 쉽게 '언어화' 되지 않았다. 그 갑갑증은 '나니까' 라는 옅은 탄식이 되어 흘러나왔다.

-언제부터 커밍아웃을 생각했나.

=딱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부터 꼭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았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에 더 물들거나 좀더 입지가 굳어지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았다.

-좀더 철저히 준비된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면 도저히 커밍아웃이 불가능하다. 뒤에 닥쳐올 일들 떠올리고, 파장

을 염려하고…. 만약 주변사람과 의논한다면 그러라고 하겠는가? 아직 이 나라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커밍아웃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듯싶다. 최소한 연예인에게는.

-후회는 안 하나.

=지금은 잘 모르겠다. 사실 조금 두렵긴 하다. 전례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면 괜찮지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가장 마음 아프다. 사회가 워낙 견고한 벽을 치고 있으니까 구멍 하나 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보다.

사회의 벽과 부모님의 고통을 얘기할 때 언뜻 그의 눈가에 물기가 스쳤다. 커밍아웃을 가장 심하게 반대한 사람은 물론 그의 부모이다. 하지만 그는 역설적이게도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다보니 커밍아웃을 하게 됐단다. '비겁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그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이다.

-한국은 동성애공포증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회다. 혹시 당신이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길거리라도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을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다. 빌써부터 느낀다. 오늘 방송기사 한 사람이 날 부르더니 정색을 하며 "진짜야? 아니지?" 라고 묻더라. "네? 뭘 알고 싶으신데요?" 라고 되물었더니 "그게 진짜라는 거야?" 라며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라. 그 방송기사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눈초리나 언론의 관심에 대해.

=이건 내가 누구한테 "당신 잠자리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공인이고, 공인의 사생활이니 보도가 문제될 것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지니는 무게감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만약 연예인 누가 누구랑 사귄다는 얘기가 있다고 치자. 과연 불륜이 아닌 이상, 그것 때문에 캐스팅에서 제외되는가. 사람들이 제대로 그 기사를 믿기나 하는가. 근데 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불이익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후….

-허락없이 기사를 내보낸 그 언론에 대해.

=신문 좀 팔아보겠다는 건데 유치하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바는.

=일단 대중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주면 좋겠다. 커밍아웃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다. 달라진 건 없다. 물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는 같을 테고.

대책없는 솔직함 탓에 낭패를 보긴 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언제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애써 웃었다. 피곤에 절은 얼굴에 스미는 미소가 오히려 더 애처로워 보였다.

〈출처〉
인권하루 소식
2000. 9. 29.
제 1105호

〈인터뷰〉 커밍아웃한 연기자 홍석천 씨

"동성애는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중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8일 만난 홍석천 씨의 표정은 밝았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면도를 못 해 덥수룩한 구레나룻은 그의 마음고생을 보여주는 듯 했다. (심보선)

▷ 방송중지통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상은 했지만 막상 통보를 받고 보니 납득이 잘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출연중지가 됐다면 모를까, 동성애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출연중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커밍아웃을 쭉 생각해왔다. 처음에는 픽션 형식을 통해 할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나한테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週간지 기자가 물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금하지 않으면 좀처럼 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 커밍아웃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커밍아웃은 실존의 문제이다. 주위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충격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커밍아웃 후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한 계이 형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평생 숨기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살고 싶었다. 또 앞으로 주위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다. 그냥 홍석천으로 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 동성애자를 불온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사회분위기는 다른 힘없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이 그렇다. 동성애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인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 문화방송의 <세 남자, 세 여자>에서 '뽀아숑'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자인 듯한 연기를 했는데….

"사실 그 연기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 동성애자가 뽀야숑이란 캐릭터로 연상될까봐…."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연예인으로서 처음 커밍아웃을 해서, 동성애자들이나 차별받는 소수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됐다.

"알고 있다. 그냥 자유롭게 구속당하지 않고 살고 싶지만, 내가 해야할 일을 어렴풋이 나마 알고는 있다. 그러나 투사처럼 살기는 정말 힘든 것 같다. 투사가 못 되더라도 열심히 살겠다."

▷ 방송출연중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는가?(거침없이 말하던 홍씨, 이 대목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소송을 할 경우, 이기고 지고를 떠나 방송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도 않다. 우선 워낙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홍씨는 요즘 하루에 백통도 넘게 전화가 온다고 한다. 인터뷰 도중에도 걸려오는 전화로 대화가 자주 끊겼지만 그는 묻는 말에 성실히 답했다.)

한겨레 21
제목: 홍석천의 유린당한 '커밍아웃' 결단

[사람과 사회] 2000년09월26일 제327호
[사람과사회] 누가 그의 결단을 유린했는가

언론에게 '아우팅' 당한 홍석천, 그의 극적인 커밍아웃

(사진/ "내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이 묻어났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도 한꺼번에 드리워져 있었다)

시드니발 도착 예정시간 오후 5시30분. 9월21일, 탤런트 홍석천(29)씨가 탄 비행기는 벌써 한 시간째 연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시간 전부터 김포공항 입국장 주변은 술렁였다. 도착 예정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TV카메라가 속속 나타났고, 출구 여기저기를 서성이는 기자들이 늘어갔다. 한국 최초로 커밍아웃(Coming Out)한 연예인 홍씨를 기다리는 것은 동성애단체의 환영인파가 아니라 의혹에 가득 찬 차디찬 카메라였다.

황당함과 배신감

오후 6시40분. 드디어 검은 선글라스를 낀 홍씨가 입국장 출구에 나타났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들이 재빨리 그를 덮쳤다. 홍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마디만 해줘. 응?" 리포터로 나온 한 선배 연예인은 인터뷰를 거부하는 그를 붙잡고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뒤를 여러 기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정리되면 얘기할게요."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이 얼핏 비쳤다. 홍씨는 가까스로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탔다. "어머니 어디 있어? 어머니 찾아!" 홍씨를 놓치자 기자들은 이번엔 그의 어머니를 찾았다.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었다.

공항의 소동은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연예인의 귀국 풍경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다. 이 심란한 풍경이 빚어진 원인은 홍씨가 출국하기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사진/ '인권유린.' 9월17일치 <일간스포츠>에 실린 홍석천씨 관련 기사. 커밍아웃한 연예인이 사용했을 리 만무한 "호모"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달고 있다)

지난 9월17일치 <일간스포츠> 1면에 홍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 제목이다. "사실… 난 남자가 좋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기사는 커밍아웃 인터뷰라면 당연히 상세하게 실었어야 할 직접 인터뷰 내용은 거의 없고 이른바 '카더라'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기있는 행동" 운운하고 있지만 커밍아웃한 연예인이 사용했 리 만무한 "호모"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달고 있었다. 뭔가 미심쩍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홍씨는 한 여행사의 올림

픽 응원단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가 있었다. 그리고 커밍아웃 기사가 나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에 있던 매니저로부터 보도 사실을 전해 들은 홍씨는 "우선 황당했고 (보도한 기자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보도를 한 <일간스포츠>의 오아무개 기자는 홍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한다.

홍씨는 출국하던 날인 9월16일, 공항에서 기사를 쓴 오아무개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오 기자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 사실을 대며 홍씨에게 "그 인터뷰에서 커밍아웃을 했느냐"며 추궁했다. 출국을 앞두고 경황이 없었던 홍씨는 "월간지 기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다"며 "돌아온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달랬다. 하지만 홍씨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론내리는 방식"으로 오 기자는 홍씨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 출국 바로 다음날, 기사로 내버렸다.

기사에 인용된 '한 월간지'는 <여성중앙21>이다. <여성중앙21>의 안아무개 기자가 9월 초 갑자기 홍씨를 만나자고 했다. 홍씨는 그저 평범한 인터뷰려니 하며 기자를 만났다. 일단 홍씨를 만난 안 기자는 "홍석천씨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언젠가는 꼭 커밍아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홍씨는 "정말 알고 싶으면 얘기해 드리지요"라며 솔직하게 동성애자임을 털어놓았다.

'아웃팅'은 일종의 정신적 테러

"왜 그랬느냐"는 물음에 홍씨는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그게 나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가 무조건 보도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홍씨는 "아직 부모님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을 설득한 다음 기사를 내보내자"는 조건을 붙였다. 일종의 '오프 더 레코더'(off the recorder)였던 셈이다.

<여성중앙21>과 인터뷰를 한 뒤, 홍씨는 부모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부모들은 "넌 절대로 (동성애자가) 아닐 거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한사코 커밍아웃을 말렸다. 인터뷰를 한 9월 초부터 보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난공불락이었다. 그 와중에 <여성중앙21>쪽은 "우리와 (커밍아웃)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직접 홍씨의 부모를 만나기도 했다. 홍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씨는 시드니로 떠났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오자'는 마음이었다. 물론 자신이 시드니에 있는 사이 커밍아웃 인터뷰 기사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국 바로 다음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기사가 나가버렸다. 한마디로 날벼락이었다.

홍씨는 '아웃팅' (outing) 당한 것이다. 자의와는 달리 누군가에 의해 한 사람이 '동성애자' 라는 사실이 알려질 때 이를 "아웃팅 당했다"고 한다. 연예인들은 아웃팅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사실 동성애자들에게 "커밍아웃 시켜버리겠다"는 위협만큼 폭력적인 말은 없다. 특히 '아웃팅' 은 공인한테 더욱 치명적이다.

커밍아웃은 반드시 예견되는 주변의 반응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준비와 판단이 우선이다. 물론 그 사이 수십번의 치열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만큼 커밍아웃은 한 개인의 침범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이자 당사자와 가족, 한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관계의 문제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아웃팅은 한 개인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뜨릴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몰고 간다. 더구나 아직 한국사회의 동성애 공포증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자행되는 아웃팅의 위험은 서구사회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홍씨는 "기사가 나간 뒤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되뇌었다. 무엇보다 당당한 커밍아웃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버린다는 점에서 아웃팅은 일종의 '정신적인 테러' 에 해당된다.

홍씨는 나름대로 커밍아웃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었다. 가족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언론의 특종 욕심이 연예인 최초의 커밍아웃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본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했음에도, 언론은 '홍석천이 동성애자' 라는 사실을 공표해버렸다. 그것도 그가 부재한 채로. 보도과정 어디에도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배려나 인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한 기자에게는 한건의 특종에 불과할 수도 있는 기사가 한 개인의 실존 전체를 뒤흔들어놓을 수도 있음을 이 사건은 보여준다.

실제적인 불이익 현실로

과연 동성애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공표해도 되는 것일까. 공인의 사생활 문제니 보도해도 좋다는 논리는 가능한 것일까. 누가 누구와 사귄다는 가십기사와 누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같은 수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동성애자' 라는 사실이 자신도 모르게 알려졌을 때 받을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고리타분한 윤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사법적인 처벌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제다.

9월21일, 귀국 당일 심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아파트에 만난 홍씨는 몹시 지쳐 보였다. 12시간의 장시간 비행에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취재경쟁, 게다가 마음 고생까지 한날 한꺼번에 겹쳤으니 초췌한 게 어쩌면 당연했다. 잠시 "아예 시드니에 눌러 살까"는 고민까지 했다는 홍씨.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는 그는 당시만 해도 '커밍아

웃' 을 할지, 노코멘트로 일관할지, 기사를 전면 부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본인이야 떳떳하게 밝히고 싶지만 가족들이 여전히 만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22일, 홍씨는 정식으로 '커밍아웃' 을 결심했다. "내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라고 쓸쓸히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은 심적인 고통이 묻어났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도 한꺼번에 드리워져 있었다.

우려하던 대로 벌써 실제적인 불이익이 홍씨에게 현실로 닥치고 있다. 9월22일, 출연하고 있던 문화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를 그만둔 것이다. 담당 PD로부터 "윗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는 얘기를 전해 들은 홍씨는 "그러면 그만두겠다" 고 했다. 이어 다음날 아침에는 출연이 예정돼 있었고 이미 1회분 녹음까지 마친 한국방송공사 라디오 시트콤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상황이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인방송의 <연예세상>에서는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 며 다음회 녹화스케줄을 알려왔다.

동성애 정체성이 침투한 첫번째 세대

(사진/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담당 PD로부터 "윗분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는 얘기를 전해 들은 홍씨는 "그러면 그만두겠다" 고 했다)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자' 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지는 않는다. 공무원 동성애자나 샐러리맨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심리적 압박은 받을지언정 '직위' 자체는 보장된다. 하지만 연예인은 고정적인 직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직업이다. 캐스팅 '당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연예인은 어찌 보면 커밍아웃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더구나 캐스팅 여부는 이미지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캐스팅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 라는 이유가 심증이 될 수는 있어도 항의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면도 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이라는 그의 탄식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이 홍씨 앞에 놓여 있다.

물론 홍씨의 커밍아웃은 개인의 결단이 우선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동성애자 공동체의 변화가 놓여 있다. 95년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를 통해 동성애자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은 홍씨. 그 당시는 줄곧 '숨은 존재' 였던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시절이었다. 그 무렵 공개적인 커밍아웃이 처음 시도되었고, 동성애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류의 다큐멘터리 추적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진이었다.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일 뿐" 이라는 언명은 새로운 동성애자 이미지를 상징했다.

이런 대중매체에서 동성애자 이미지의 변화와 인권운동의 출현은 동성애자 공동체 내부 또한 크게 바꿔 놓았다. 더이상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변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

작한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 공동체에서 "호모"라는 비하적인 말 대신 "게이"라는 자긍심의 언어가 자리잡은 것도 이즈음이다.

이전 세대의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주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슥한 밤거리로 스며들었던 데 비해 90년대 중반 공동체에 편입된 동성애자들은 서로의 실명과 집 전화번호를 나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동성애자들이 비로소 '동성애자 친구'를 갖게 된 것이다. 종로를 대신해 새로운 동성애자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른 이태원은 그 변화를 상징한다. 이전 세대가 일상과 동성애적 삶의 분열을 감내하고 살았다면, 70년대생 동성애자 세대들은 그 고통을 적극 해소하려 했다. 이런 현상은 '커밍아웃'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나타났다. 홍씨도 90년대 중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편입된 경우다. 더구나 홍씨는 솔직담백한 성격 탓에 연예인이 된 뒤에도 동성애자 공동체에 발을 끊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공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래도 일상을 갑갑하게 만들었다.

그의 집 소파 옆에는 <씨네21>이 한권 놓여 있다. 9월 초 개최되었던 퀴어영화제 프로그램이 담긴 책이었다. 홍씨는 <씨네21>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인 듯 중얼거렸다. "퀴어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자 친구들과 정말 함께 호흡하고 싶었어요…." 홍석천씨 세대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과 함께 퀴어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는 세대다. 그만큼 동성애 정체성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첫 번째 세대라는 뜻이다.전례가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그로서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겠지만, 그의 커밍아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연예인으로 최초인 홍씨의 커밍아웃은 90년대 중반 이래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과 조금 다른 맥락을 지니는 것이다. 여태껏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화평론가 등 '지식인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거나 동성애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이었다. 지식인사회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동성애공포증'이 덜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들의 실존적 결단도 힘겨운 과정이었겠지만 '국민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연예인 홍씨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 못할 반열에 오른 대스타도 아니다.

홍석천 커밍아웃의 특별한 의미

한국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고민하던 홍석천씨는 언론에 의해 결국 아웃팅당한 꼴이 됐다. 하지만 그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극적인 '커밍아웃'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 스스로 "치기어린 용기"라고 평한 이 행동에 한국사회가 잔잔한 박수를 보낼지 신경질적인 야유를 보낼지 두고 볼 일이다. "연예인의 두 번째 커밍아웃은 또다시 아웃팅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언론의 양심이 달린 문제다." 홍석천씨가 혼잣말처럼 되뇌였다.

신윤동욱 기자syuk@hani.co.kr

한겨레신문

제목: [홍석천] '커밍아웃', '방송아웃'

[동성애] 커밍아웃 : 방송아웃

〃가족프로 정서 안맞아〃 〃사회적 편견 인권침해〃
탤런트 홍석천(29)씨가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한 뒤 각 방송사가 출연취소 통보를 해 동성애자인권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씨는 27일 "지난주 한국방송공사 라디오 시트콤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와 문화방송 <뽀뽀뽀>쪽에서 출연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가능하다면 방송을 계속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공사 제2라디오(AM 603KHz)는 시트콤 <우리집…>(월~토 오전 8시30분)에 홍씨를 새로 투입해 4일치 녹음을 마쳤으나 지난 23일 출연을 최종 취소했다. 또 문화방송 <뽀뽀뽀>(월~금 오후 4시10분) 역시 다음달 2일부터 홍씨를 빼고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공사 이영노 피디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상식선에서 방송을 하는데, 커밍아웃을 한 이상 남녀노소 모두가 보는 가족 시트콤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방송 김세영 책임프로듀서 역시 "외국에선 어떤 시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황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성애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권단체에선 동성애자라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커밍아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연예인이란 공인의 첫사례인 만큼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일이 고스란히 홍씨의 피해로 끝난다면 앞으로 어떤 공인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글 정세라 황준범 기자seraj@hani.co.kr, 사진 강제훈 기자

연합뉴스 (2000년 9월 28일)
제목: 동성애자모임, 홍석천씨 인권유린 중단요구

[동성애] 동성애자모임, 홍석천씨 인권유린 중단요구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동성애전문지 버디,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방송사와언론사는 홍석천씨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가 홍씨의 동성애 사실을 폭로한 이후 KBS와 MBC가 홍씨의 방송출연을 중단시키는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의 홍씨에 대한 사과와 배상 △KBS와 MBC의 홍씨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조치 철회 △성정체성 차이를 존중하는 방송사와 언론사의 보도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 글쓴이:중앙일보 (outpride@netian.com)
◎ 2000/9/30(토) 00:13 (MSIE5.0,Windows98;DigExt) 211.104.39.235 1024x768

인권단체 등 홍석천씨 '방송복귀' 주장

▶ 게 재 일 : 2000년 09월 29일 47面(10版)

인권단체등 홍석천 '방송복귀' 주장

동성애자임을 밝힌 탤런트 홍석천(사진)씨에 대해 동성애자 인권단체 등이 '방송복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동성애자 인권연대.서울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동성애 전문지 버디 등 동성애 관련 4개 단체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발표, "성적소수자들도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존엄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면서 "MBC와 KBS는 홍석천씨의 방송출연 중단을 조속히 중지하고, 방송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홍씨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를 '인권유린' 으로 규정,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각 방송사와 언론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간의 보도관행을 청산하고 성 정체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송 및 보도 기준을 마련하라" 고 요구했다.

MBC '뽀뽀뽀' 등에 출연해온 홍씨는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면서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는 통고를 받았다.

또 KBS '야 한밤에' 역시 홍씨를 게스트로 섭외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MBC 김세영 외주제작부장은 "우리 사회분위기상 동성애자를 다른 프로도 아닌 어린이 프로에 아무렇지 않게 출연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고 말했다.

현재 '뽀뽀뽀' 인터넷사이트에는 이에 관한 시청자들의 논쟁이 한창인데, 서울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팬과 예술계.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을 만들어 그의 연예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후남 기자

◎ 글쓴이:동아일보 (outpride@netian.com)
◎ 2000/9/30(토) 00:23 (MSIE5.0,Windows98;DigExt) 211.104.39.235 1024x768

[사이버 핫라인]MBC<뽀뽀뽀>, '동성애자 출연정지' 뜨거운 논란

기사 분야 : 방송/연예
등록 일자 : 2000/09/27(수) 19:05

[사이버 핫라인]MBC<뽀뽀뽀>, '동성애자 출연정지' 뜨거운 논란

"동성애자를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 출연시켰던 '뽀뽀뽀' 제작진은 제 정신인가." (하이텔, PMIS2000)

"모든 문제를 공정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방송국이 시대착오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MBC홈페이지, 허성경)

탤런트 홍석천이 '커밍아웃(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 을 한 후 '뽀뽀뽀' 로부터 출연 정지를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 인터넷 게시판과 PC통신에는 '동성애자는 유아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안되는가' 라는 논란이 뜨겁다.

홍석천은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일부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한 후 22일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정지 통보를 받았다" 며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 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다를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해 2월 미국에서는 영국 BBC방송의 인기유아프로그램 '텔레토비' 에 대한 동성애 논란이 있었다. 유아교육학자이자 리버티대 총장인 제리 팔웰목사는 "텔레토비 중 '보라돌이' 는 게이를 상징하고 게이는 아이들에게 그릇된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다" 고 주장하며 텔레토비 방영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던 것. 그러나 BBC가 이를 부인한데다 보라돌이가 '커밍아웃' (?)을 하지 않은 만큼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유아프로그램은 아니지만 97년 4월 미 ABC방송의 인기 코미디 '엘런' 은 정면으로 '커밍아웃' 을 다뤄 화제가 됐다. 여주인공인 동명의 여배우 엘런이 "나는 레즈비언" 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ABC는 '커밍아웃' 편을 긴급 제작, 극중 주인공 엘런도 레즈비언임을 선언하도록 한 것.

이 에피소드는 '엘런'의 평균시청률(9.6%)보다 훨씬 높은 23.4%로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ABC는 극중 엘런이 부모에게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는 에피소드를 또 한번 다뤄 주연 배우의 '사생활' 마저도 철저히 '상품화'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가족협회는 항의시위와 함께 광고주에게 광고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실제로 일부 광고주는 광고를 철회하는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한편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동성의 관계에서 평등한 인간관계의 모델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 글쓴이:동아일보 (outpride@netian.com)
◎ 2000/9/30(토) 00:22 (MSIE5.0,Windows98;DigExt) 211.104.39.235 1024x768

동성애자 모임, 홍석천씨 인권유린 중단 요구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0/09/28(목) 14:25

동성애자 모임, 홍석천씨 인권유린 중단 요구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동성애전문지 버디,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방송사와 언론사는 홍석천씨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가 홍씨의 동성애 사실을 폭로한 이후 KBS와 MBC가 홍씨의 방송출연을 중단시키는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의 홍씨에 대한 사과와 배상 ▲KBS와 MBC의 홍씨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조치 철회 ▲성정체성 차이를 존중하는 방송사와 언론사의 보도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na.co.kr

글쓴날 : 2000-11-03 14:38:12
글쓴이 : 홍커지모 조회 : 73
제목: [중앙일보] 영국 BBC, 국내 홍석천 논란 보도

영국 BBC, 국내 홍석천 논란 보도

탤런트 홍석천(사진)씨의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행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영국 BBC에 보도됐다.

BBC는 1일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성애자 배우가 한국을 놀라게 하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서 홍씨를 두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국 최초의 공인(公人)" 이라면서 "이같은 공표 때문에 그는 직업을 잃었고, 성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이 드문 한국사회에 커다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 보도했다.

BBC는 홍씨의 커밍아웃이 던진 파문에 대해 " '커밍아웃' 이란 단어가 한국어에 더해졌다" 고 표현하고, 홍씨의 '뽀뽀뽀' 출연 중단 사실과 이에 항의하는 동성애자 인권단체 등의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홍씨는 "어린이들에게 정직한 모범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0-11-03 14:36:01
글쓴이 : 홍커지모 조회 : 25
제목: [동아일보] 홍석천씨 관련 국감공방

동아일보
[국감 S&P]30대와 70대의 "동성연애 공방"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2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KBS 국감에선 30대 의원과 70대 방송사 사장의동성연애 공방이 단연 화제였다.

쟁점은 동성연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탤런트 홍석천씨에 대한 방송출연금지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것.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35)의원은 이 조치가 '또 하나의 차별' 이라고 주장.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몰라도 모든 프로그램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사장 연령층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시청자가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KBS 박권상(朴權相·71)사장은 "공영방송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변.

박사장은 "솔직히 우리 세대에서는 얘기조차 안되던 동성연애는 우리 도덕관념상 너무 급진적인 문제이므로 신중이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을 폈다.

'홍석천씨 국감 출석 무산'에 대한 기사모음

2000-11-03
제목: [연합뉴스] 홍석천씨 국감 출석 무산

<홍석천씨 국감장 출석 무산>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최근 동성애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 탤런트 홍석천(29)씨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 무산됐다.

홍씨는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까지 왔으나, 이 의원으로부터 "오늘은 힘들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홍씨의 출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국감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은 "법사위 파동으로 여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위가 동성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홍씨의 참고인 출석은 오는 7일로 연기됐으나 반대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경우 출석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씨는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고 고민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석을 결심했다"면서 "7일에는 꼭 출석해 발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날 복지위에서 동성애자를 잠재적 에이즈 환자나 전파자로 보는 시각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동성애자를 위한 종합상담시설 설치와 중고교 교과서 내용 중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의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mangels@yna.co.kr

동인련/홍커지모
제목: [국감속보] 홍석천 보건복지위 출석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지난 11월 3일 보건복지위 이종걸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몇몇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홍석천씨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반대의원들의 이유로는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 " 동성애자는 정신치료 대상인데, 국회 출석은 말도 안된다." 등의 이유로 출석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11월 7일 재 출석에 대한 약속을 동인련 임태훈 대표가 이종걸의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의원들은 출석에 대한 상정 자체를 반대하여서 본회의장에 입장 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일간 국정감사 시민연대에서는 보건복지위 홍석천씨 출석거부에 대한 코멘트를 할 예정이며,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홍커지모는 내일 오전 11시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때 낙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홍석천 기자회견 관련 연합뉴스 2000/11/09 (목) PM 03:24:08

[연합뉴스] 홍석천씨 국감출석 무산에 인권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 동성애자인권연대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탤런트 홍석천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이 무산됐다"면서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친 국회는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홍씨가 지난 3일과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를 발언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동성애자는 정신치료 대상인데, 국회출석은 말도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차별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하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 인권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00-11-09 15:53:06
글쓴이 : 동인련/홍커지모 조회 : 42
제목: [YTN] 홍석천 거부 인권 침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성애자임을 선언했던 탤런트 홍석천씨의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은 인권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할 국회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홍씨의 출석을 막고 인격을 비하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안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0년 11월 9일
제목: [세계일보] 홍석천씨 국감출석 무산에 인권단체 반발

○…동성애자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은 8일 서울 안국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탤런트 홍석천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이 무산됐다"며 "소수 인권을 내팽개친 국회는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

이들은 "홍씨가 지난 3일과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발언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이 '국회 품위를 손상시킨다' '동성애자는 정신치료 대상인데 국회출석은 말도 안된다'는 등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

이들은 또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차별적 발언을 취소, 사과해야 하며 성적 소수인 동성애자 인권보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

제목: [홍석천씨 커밍아웃]에 관한 동인련의 공식입장

텔런트 홍석천씨의 커밍아웃과 관련한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공식입장입니다.

1.동인련은 동인련 원칙에 명기된 것처럼, 모든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다만 개인의 커밍아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강요하거나,강제적 아웃팅이 되어서는 안된다 것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한다

2.따라서 이번 홍석천씨의 커밍아웃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체, 본인이 출국한 상태에서 일방적 보도를 자행한 일간스포츠와 이후 홍씨 관련기사를 단순한 흥미거리 내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남발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3.언론의 보도행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KBS, MBC등 방송국의 홍석천씨에 대한 일방적 출연정지 처분임을 지적한다
출연자가 단순히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출연정지 처분을 한 것은, 한국 동성애자 인권 현실과 또 이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는 처사로 동인련은 인식한다.
따라서 이런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억압적 일방 해고 조치에 대해 동인련과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이번 출연정지 처분은 홍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동성애자 전체에 대한 부당한 억압 조치로 인식하는 바이다.
따라서 동인련은 홍씨와 의논하여 이번 출연정지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 임을 밝히는 바이여, 홍씨의 결심이 서는 대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4.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거와는 달리 홍석천씨는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공식 회원이 아니다.
홍씨가 그동안 동성애자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지녔고, 그러한 그의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이번 그의 용감한 커밍아웃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동인련의 활동에 대한 지지 입장과 동인련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는 있었으나, 그가 동인련의 회원으로 공식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9월 27일 동성애자 인권연대

제목: [문화연대] 홍석천씨 관련 성명서 입니다(동인련 외 5개단체)

연예인 홍석천 씨를 둘러싼 최근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일부 언론 매체는 연예인 홍석천 씨의 성정체성을 다투어 폭로하였다. 그리고 이런 보도에 접한 일부 방송사는 홍석천 씨가 출현하던 프로그램의 출현을 중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차별과 폭력을 행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태에 마주하며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는 성정체성의 차이가 긍정되고 다양한 삶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근일 숨가쁘게 전개된 정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홍석천 씨와 관련된 사태가 비단 홍석천 씨 개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머무르지 않는 일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명백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거부를 보내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홍석천 씨의 성정체성을 폭로한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가 홍석천 씨에게 마땅히 사과와 배상을 하고, 아울러 해당 지면을 통하여 홍석천 씨의 인권을 유린한 기사 내용과 보도 방식에 대해 독자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홍석천 씨가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에 관해 발언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련 기사나 그의 발언을 고려할 때, 홍석천 씨는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숨기거나 비난받아야할 사실로 여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런 그의 용감하고 성숙한 행동을 악용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 행태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그가 스스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도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그의 의사를 묵살한 채 이뤄진 자의적인 보도는 관련 언론사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관련 언론사는 즉시 홍석천 씨에게 적절한 사과와 배상을 행하라.

둘째, 우리는 문화방송사와 한국방송공사는 홍석천 씨의 프로그램 출연 중지를 중단하고, 조속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홍석천 씨의 출연정지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해 시청자들에게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동성애와 관련한 그간의 반인권적인 보도 관행을 중단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소수적 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방송 기준을 만들어내기를 요구한다. 홍석천 씨에 대한 출연 정지 처분을 통해 우리는 방송사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집단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공익적인 매체로서 관련 방송사들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 확신한다.

셋째,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다양한 차이가 긍정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램에 커다란 경종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금지의 사태를 목격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한 성적 소수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노력을 마주하여 왔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존엄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우리의 의지와 소망을 짓밟는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성적 소수자의 삶의 존엄과 행복의 권리를 옹호하며, 성적 소수자들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울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삶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희망에서 불가결한 부분임을 거듭 확인한다.

[우리의 요구]

1. <여성중앙21>과 <일간스포츠>는 홍석천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문화방송>과 <한국방송공사>는 홍석천 씨의 방송출연 중단을 조속히 중지하고, 방송에 복귀시켜야 한다.

3. 방송사와 언론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간의 보도 관행을 청산하고, 성정체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송 및 보도 기준을 마련하라.

2000. 9. 28.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 / 동성애자 인권연대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 연대 / 서울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 / 동성애전문지 버디 / 인권운동사랑방 (이상 가나다 순)

출처: 동인연 자유게시판 2000년 9월 29일

제목: [성명서] 홍석천씨 관련 민주노동당 보도자료입니다.

[성명]성적소수자를 차별.배척하는 사회를 개탄한다(홍석천씨 관련)

성 명
성적 소수자를 차별·배척하는 사회를 개탄한다
동성애 공개 홍석천씨 불이익 조치는 비인권적 처사

연예인으로서 최초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홍석천씨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 것은 우리 사회의 성적(性的) 소수자에 대한 배척의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서 심히 개탄스런 일이다.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며 나아가 비인권적이다. 홍씨의 경우도 성실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는 마당에 그가 단지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야 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왕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평등한 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종류의 차이에 대해 관대해진 사회일수록 평화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 이미 유럽·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의 결혼권리마저 인정하는 추세임을 본다면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배타적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 당은 당강령 중 인권강령에서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이번 홍씨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가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부대변인 김종철

<홍석천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인권하루 소식 2000년 9월 29일 제1105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

동성애자라고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미개하고 우매한 처사다.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의 이면에는 동성애자를 정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홍 씨를 지지하며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다.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진이지선 지역운동센터 부장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치적 결단으로 방송출연이 중지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 또 홍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는 인권침해다. 언론에 의해 반강제로 커밍아웃을 한 홍씨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해 할 것으로 보인다. 홍씨에게 지지를 보낸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

(출연을 못하게 된 것은)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방송출연중지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홍씨에 대한 테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을 깨고, 소수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돼야 한다.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홍씨가 방송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심대해질 경우 공인의 커밍아웃은 아주 어려워 질 것이다. 커밍아웃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을 경우 동성애자들은 음지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아주 비극이다.

2000-11-10 글쓴이 : **동인련/홍커지모**

제목: 홍석천 국감거부 사건경위와 공식입장

홍석천 국감거부 사건 경위와 공식 입장

동성애자인권연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최근 탤런트 홍석천씨의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 출석 저지 건과 관련하여, [동인련/ 홍커지모]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이종걸 의원실과 고진부 의원실의 해명 및 성명에 대해 그간 사건경위와 동인련, 홍커지모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10월 중순경 이종걸의원실 한귀영 비서관에게서 동성애자인권연대 쪽으로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임태훈씨와 버디 편집장 한채윤씨가 국회 의원회관 이종걸 의원실을 방문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의원이 국정감사때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철영 보좌관과 한귀영 비서관께서 밝혔으며, 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홍석천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보좌진의 말이 있었으며, 임태훈씨와 한채윤씨는 홍석천씨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난 후에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이야기를 보좌진 쪽에서 했습니다. 시기는 ASEM이 끝난 다음이 좋겠다고 서로의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2일 홍석천씨와 임태훈 대표는 함께 국회의원회관 이종걸의원실에서 이종걸의원과 보좌진들과 함께 미팅을 하였습니다. 홍석천씨는 이때 가족들과 특히 어머님과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여서, 국회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시간여 동안의 대화를 한 다음 긍정적으로 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을 만나서 참고인 출석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임의원의 지지에 뜻에 홍석천씨는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홍석천씨는 국감출석에 대한 결정을 출석 당일 11월 3일 새벽에 출석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감 출석일 11월 3일 아침 10시경부터 이종걸 의원실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홍석천씨와 임태훈 대표는 이종걸 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경이 되어서 국회 국감장으로 보좌진과 홍석천씨, 임태훈대표가 이동하였고, 보건복지위 국감장 옆 행정실에서 간단한 행정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행정실을 찾아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동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동성애는 정신치료 대상자라는 의원도 있다. (이에 임태훈 대표가 이종걸의

원을 발언을 저지하며 '동성애는 이미 미국정신의학회 DSM제외 되었으며, WHO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왜 하지 않으셨나?'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종걸의원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다. 법사위 파동으로 의총에서 선서를 하고 여야 분위기가 경색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 주장 의원중에는 지금 법사위 파동으로 국회가 심각한 분위기에서 동성애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은 힘들것 같고 국감이 끝나는 7일날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임태훈 대표는 "7일날은 무슨일이 있어도 출석을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종걸 의원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 (국감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은 "법사위 파동으로 여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위가 동성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일보 (이종걸(李鍾杰)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요청, 이날 오전 일찌감치 국감장에 나왔던 홍씨는 다른 의원들이 "국회 품위를 손상시킨다" 며 반발하자 오후 늦게 국감장을 떠났다. 일부 의원은 "동성애자는 정신과 치료대상인데, 국회 출석은 말도 안된다" 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의 배석 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 복사기와 국감장으로 연결되는 문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이종걸의원 앞에는 홍석천씨와 임태훈대표가 있었으며, 바로 뒤에는 KBS기자와 중앙일보기자, 연합뉴스기자. 이종걸의원 오른쪽에는 한겨레 신문 기자가 배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일간지 4일자 보도는 임태훈 대표나 이종걸 의원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홍석천씨의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종걸 의원이 홍석천씨와 임태훈 대표에게 국감 출석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은 기자들이 자신의 취재를 근거로 보도한 것이다. 한귀영 비서관과 정철영 보좌관은 약간 떨어진 곳이 위치하고 있었다. 홍석천씨의 국감 출석 저지 이유중에 [동성애자가 정신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한 의원이 있다는 것에, 정신병 발언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약력을 뒤지던 중 고진부의원이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았고, 이에 임태훈 대표가 한귀영 비서관에게 전화를 통해 그 발언은 고진부의원이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한비서관의 답변은 [고진부 의원이 발언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종걸의원에게 직접 물어볼수도 있었으나, 같은 동료의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종걸의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기존의 발언을 번복하고, 동인련과 홍커지모를 비롯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뜬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치부해 버리려는, 이종걸 의원실과 고진부 의원실의 해명과 반박 성명은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물론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최초로 국감장에서 밝혀보고 ,이를 통해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개

선해보려는 의도를 가졌던 이종걸 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국감 출석 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결과, 동료 의원인 고진부 의원 사이에서 매우 난처한 입자이라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또 뒤늦은 변명같은 성명이지만 고진부 의원이 우리가 우려하고 개탄했든 것과는 달리,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은 없지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두 의원측은 문제를 호도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이번 홍석천씨 국감출석 저지의 핵심을 바로 보길 바란다.

2. 이종걸 의원과 고진부 의원에게 드리는 요구

이미 국회법에 따라 정식 참고인으로 채택된 참고인의 출석을, 국회법을 스스로 만들고 누구보다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지 참고인의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참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그 이유가 이종걸의원이 밝힌 대로 [국회 품위 훼손]과 [동성애자는 정신치료의 대상] 이라는 이유라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참고인 당사자는 물론 그와 같은 발언을 통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입은 한국 동성애자에게 사죄하여야 함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본질은 회피한 체 문제 발언을 덮어버리려는 해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만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종걸 의원과 고진부 의원에게 촉구한다
문제의 본질에 한발 비껴나간 보좌진들의 해명을 달랑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오만한 태도로 모든 사건해결을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좀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또 자신들의 문제 발언이 전달과정에 와전된 것이라는 강변이라면, 최소한 홍석천씨 국감출석저지에 대한 해명 및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 체, 마치 인권단체 및 동성애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여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어감의 해명 및 성명은 적반하장 바로 그 자체이다.
또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고진부 의원 자신이 "자신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동성애자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동성애 문제를 고민하여 정신과 의사들에게 상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라는 발언은 고의원이 직접 한 것으로 이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홍석천씨 국감 출석저지에 어떠한 유형으로도 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니다. 즉 고진부 의원 자신이 해명한대로 진정 "이미 7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라졌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애자라고 느끼는 본인 스스로가 병으로 잘못 알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존의 동성애자에 대한 정신병자라는 왜곡된 편견을 다른 의원들에게 고착화시키는 발언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고의원이 사실무근인 주장으로 본인의 명예가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누가 사실무근인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 당했는지 되물어볼 수밖에 없다.

진정 이종걸 의원과 고진부 의원이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인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며 또 [이번 홍석천씨 참고인 출석을 통해 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이후 전향적으로 이어져나가기 위해서]라면 다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는 특히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이종걸의원을 좋은 벗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국회의원답게 자신의 발언과 입장에 대한 솔직하고도 책임감 있는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바라는 점이다

1. 동성애자 탤런트 홍석천씨의 국회출석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이 누구이며, 만약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면 홍석천씨가 참고인 출석을 저지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참고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입장이 이종걸 의원 독단의 판단인지 밝히도록 하라.

2 참고인 출석을 저지당한 홍석천씨에게 국회 보건위 전체 명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참고인의 출석 저지 차원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자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더우기 소외받고 억압받는 동성애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지와 편견이 일조한 동성애자 인권억압의 전형적인 사례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종걸 의원이나 고진 부의원의 개개인에 대한 성토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치 권력 전체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함을 아울러 촉구한다.

인권하루소식 2000년 9월 30일 제 1706호

[논평] 동성애자에 대한 '상식의 폭력'을 멈춰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언제나 '장막 뒤에 가려진 존재'였다. 그들은 실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연예활동을 직업으로 가진 한 동성애자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

"내 커밍아웃은 성(性) 정체성 확립과 같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살면서 기본적인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심정을 아나. 나의 가장 큰 목적은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려는 것이다"는 말처럼 홍석천 씨는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자 당당히 동성애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러나 그에게 뒤따른 결과는 '방송출연 취소통보'. 동성애는 사회전체가 합의한 상식 선에서 벗어나고, 동성애자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너희 동성애자들이 꼭꼭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람은 각기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는 그에게 실존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란 무엇인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터부이자 낙인'이 아니던가? 결국 동성애자에게 던져지는 사회적 지탄은 '상식'의 이름을 빈 '폭력'이며, '합의'를 가장한 '파시즘'인 것이다.

홍석천 씨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고 '눈에 잘 띄지 않게' 살았다면 그는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홍 씨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홍 씨의 진실은 더욱 아름답다. 홍 씨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상대로 투쟁에 나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

비단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아래 놓여 있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제 '자신과 다름'을 이유로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다수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홍석천 씨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4. 인권하루소식 홍석천씨 관련 기사 모음.

동성애자 최초 공개 행진

같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다

친구사이(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끼리끼리(한국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등 10여 개 국내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실무간사 김현진, 조직위)는 26일 대학로에서 한국 최초로 공개적인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7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펼치는 독립예술제 행사의 일환인 가장 행렬에 동참해 벌어질 이 행진을 위해 조직위 측은 2백여 명분의 무지개 페인팅과 깃발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 실무간사인 김현진 씨는 "동성애자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변의 그 누구나일 수 있고 우리 속에 속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행사기획 의도를 밝혔다.

누구나 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26일 오후 2시까지 대학로 서울대 병원 후문으로 모이면 된다. (류은숙)

- 2000. 8. 26. (1684호)

커밍아웃 홍석천씨, 방송에서 '아웃'

각계, 홍씨 지지 선언 준비

2000년 9월 29일
1905호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한 연기자가 무대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관련 인터뷰 3면>.

MBC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와 KBS 제2라디오 시트콤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는 지난 22일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한 연기자 홍석천(29) 씨에게 출연중지를 통보했다.

홍석천 씨는 방송출연을 못하게 된 데 대해 28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출연취소 통보를 받으니 납득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 때문에 출연취소를 통보받으니 섭섭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일부언론이 방송국과 합의해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입장에서 어린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뿐이다"며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석천 씨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문화연대, 동성애 전문지 버디 등 6개 단체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일부 언론이 홍 씨의 성정체성을 앞다투어 폭로하고 방송사가 출연을 정지시킨 것은 다양한 삶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는 '홍석천 씨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연락 2235-7422). (심보선)

왼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

홍석천 씨가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기 위한 모임이 발족됐다.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이석태(변호사)·정범구(국회의원)·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 씨 등 사회단체·법조·여성·문화·언론·정계 인사들로 구성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커밍아웃 2000'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커밍아웃 2000' 캠페인 사이트(www.comingout2000.org)도 개설했다.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씨는 "발족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이외에도 네티즌 1천여 명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3백여 명이 서명참가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하은희)도 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동성애자 문제는 사회적인 억압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수자라고 해서 폭력과 차별, 비인간적인 대우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 '동성애' 일문일답

독자들이 '홍석천씨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마련했다(편집자주).

▷ 동성애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아래 인정돼야 하는가?

왼손잡이가 사회에 해악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역시 그렇다.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잡이가 되라고 '권유'하는 것은 다수의 기준에 맞출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성애자가 다수인 사회에서 동성애에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유전적·환경적·문화적 요인 등 성적 지향의 근본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듯, 자기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동성애는 동물적 성행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성애가 성행위에 국한되지 않듯 동성애도 그렇다. 동성애자들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거기에 성행위가 포함되는 것이다.

▷ 어린이프로그램까지 출연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닌가?

홍석천 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정지 당한 것에는 반대하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출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씨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진 어린이가 자기의 성적지향을 일찍 깨달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성애자가 억지로 동성애자로 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0월 5일
1008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결국 무산

홍석천씨 증인채택도 안돼

국회가 홍석천(연기자) 씨의 증언을 결국 거부했다. 홍 씨가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홍 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홍 씨의 증언계획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당초 이종걸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당)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등에 관한 질의를 위해 홍석천 씨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상임위 내에 "국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선례가 없다"거나 "동성애 사안이 보건복지위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건제출을 포기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서면으로 관련 질의를 대신했다. 이종걸 의원실의 정철영 보좌관은 "현실의 벽이 매우 높은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창조)

2000년 11월 8일
1332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홍석천 씨의 참고인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진부(민주당) 의원이 8일 "홍씨가 국회에 출석한다해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kojinboo.co.kr/html/index.html)에 올린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는 소수자가 자기 의사를 대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성명은 이날 오전 '동성애자 인권연대'(아래 동인련, 대표 임태훈) 등 13개 인권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발표됐다.

고 의원은 자신이 "동성애자는 정신치료의 대상"이라는 발언을 한 당사자로 알려진 데 대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개질의를 한 13개 인권단체들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서구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애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병으로 잘못 알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진부 의원실의 조원준 비서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했던 이종걸(민주당) 의원실은 8일 고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고진부 의원이 '동성애자는 정신치료 대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 보건복지위에 공개질의

앞서 동인련, 민변 등 13개 인권단체는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 사태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져버린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억압자세를 버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는 자세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3개 인권단체들은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발언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보선)

2000년 11월 9일
1333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본지 11월 9일자 '동성애자' 기사와 관련,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사건경위와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사건경위

11월 3일 오후 3시경 이종걸 의원 보좌진과 홍석천 씨, 임태훈 동인연 대표가 국감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행정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찾아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 동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동성애는 정신치료대상자라는 의원도 있다"는 말을 했다. 당시 KBS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기자가 배석하고 있었으며, 이종걸 의원의 설명을 옆에서 직접 들은 기자들이 이를 보도했다. '동성애자가 정신치료의 대상'이라는 발언과 관련, 발언자가 고진부 의원이라는 사실은 임태훈 대표가 비서관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2. 이종걸 의원과 고진부 의원에게 드리는 요구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홍석천 씨에게 국회 보건위 전체 명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종걸 의원이나 고진부 의원의 개개인에 대한 성토보다는,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치권력 전체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2000년 11월 14일 1136호.